



일본 한 건축 잡지의 인터뷰에서 안도 다다오는 건축의 최종목적은 생활공간의 개선이라 힘주어 말한다. 그가 보는 건축의 본질은 단순한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의 구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 해답으로 표출되어진 것이 <물의 교회>이다. 안도는 물의 교회에서 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며 떨어뜨리고 가두기도 한다. 그는 이를 '흐르듯 흐르지 않는'이라 표현한다.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안도를 꼽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안도의 건축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형태적인 강렬함, 공간적 스케일, 그리고 건축이 지니고 있는 수학적인 명쾌함을 모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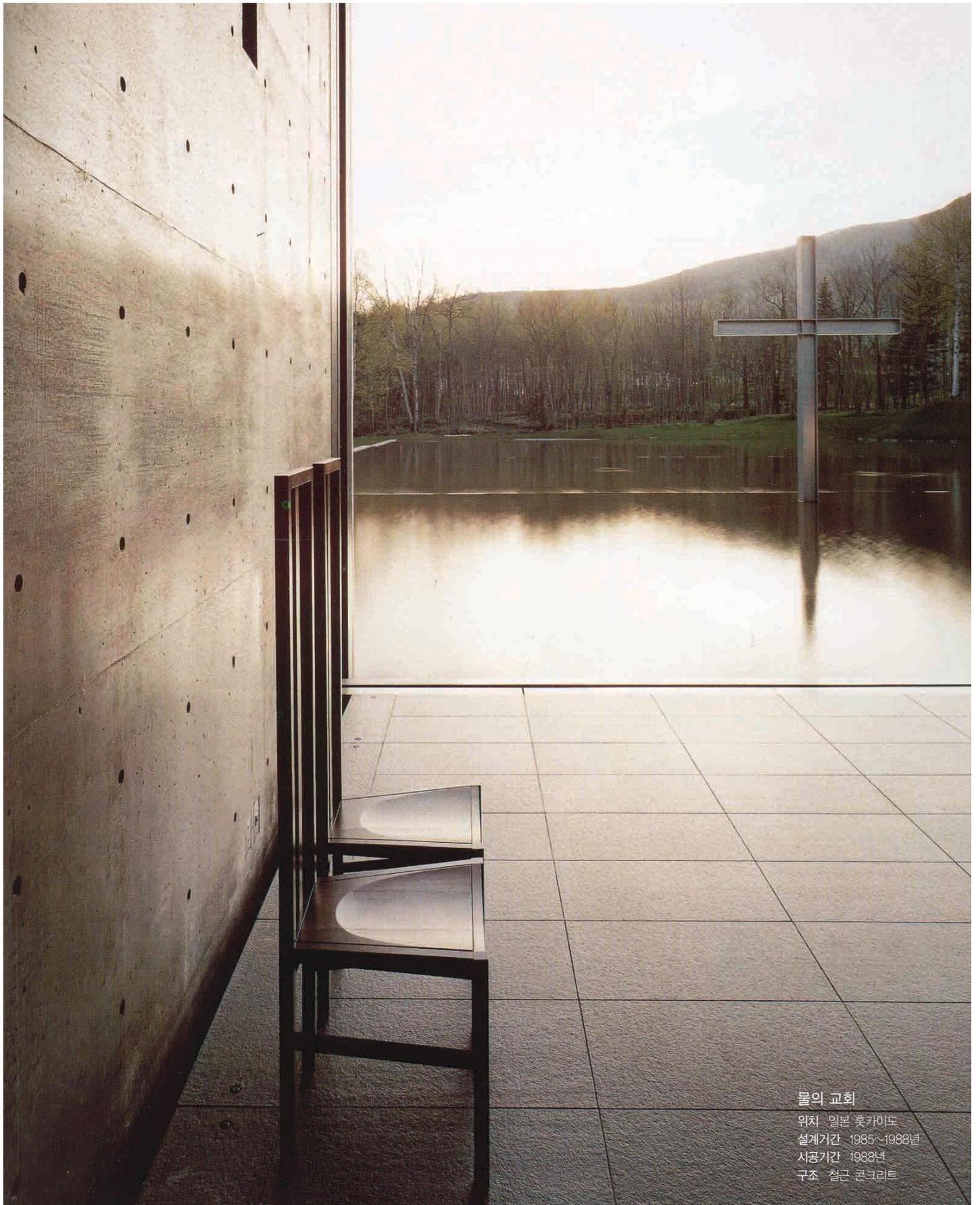
안도는 물위의 교회를 통해 자연을 안으로 들여오는 시도를 하였다. '물'이라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살려 작은 규모의 교회를 자연 한 가운데로 옮긴 것이다. 건물 밖 물 속에 박힌 십자가는 건축적 구조를 넘어선 상징으로 비쳐진다. 자연과 건축의 이중성을 표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자연에 포함되도록 밖으로 꼬집어냄으로써 전면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인공적으로 식재된 벽을 만들어 외부와 시야가 차단된 극히 사적인 공간,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물,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뿐이다.

북해도의 외딴 산악지역에 지어진 물의 교회는 현재 호텔의 부속건물로서 결혼식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고 한다. 잔잔히 물살이 일듯 사랑이 흐르고, 물이 건축물 안에 공존하듯 둘만의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은 곳. 정말 여자라면 그런 곳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솟구친다. [@](#)

흐르듯 흐르지 않는 거장 안도 다다오의 물의 교회

글 편집실 사진 임채진 교수 _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물의 교회

위치 일본 홋카이도
설계기간 1985~1988년
시공기간 1988년
구조 철근 콘크리트